新年隨想

새해 부디 힘내세요!

원영 스님
서울 청룡암 주지





그림 · 최주현

'망친지구 모습을 보라'는 코로나19 화두
'오비이락' 일화 사냥꾼처럼 업을 끊어야
신년엔 모두 바른 방향으로 살아 갑시다

동이 터 오려면 아직 먼 시간, 법당에 불을 켜고 부처님 전에 향 한 자루 사루어 올린다. 절집에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양력 새해에 뵙는 부처님의 존안 또한 뭔지 모르게 지난해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마음 한 켠이 새로운 기운에 파도 치듯 철썩 거리는 듯도 하다. 오늘따라 더 온화해 보이는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정성껏 소망을 빌어본다.

"부처님! 또 이렇게 한해를 맞이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부처님 성도하신 나이보다도 이젠 훨씬 더 많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새해에는 더욱 마음 굳건히 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장애도 이겨내게 하시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살게 해주시고요!"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엉거주춤 최대한 몸을 웅크려 절을 하고 일어섰다. 겨울엔 절 좌복도 차갑기만 하다. 겨우 추스르고 일어나 외등을 끄러 나갔다. 마당에 눈이 하얗다. 세상의 모든 병균들도 이렇게 하얀 눈 앞에선 자취를 감춘듯하다. '코로나야 너도 어딘가에 숨었겠구나.'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색으로 덮는 하얀 눈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제발 싸우는 사람들, 나쁜 병균들도 다 덮어버리렴. 꼼짝 못 하게!'

'그나저나 언제 이렇게 왔지?'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모자에 장갑. 마스크와 목도리까지 완전무장을 하고 나와 눈을 쓸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보니 이른 아침부터 길 나서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총총 남겨져 있다. 신기하게도 모두 한 방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쪽 큰길을 향하고 있다. 이래서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눈 덮힌 들길 걸어 갈 제 어지러이 걷지마라)' 이라 했던가. 어느 곳으로 가야 큰길이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발자취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는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신문, 방송, 인터넷이 오로지 코로나19 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간 인류가 걸어온 발전의 역사가 지구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반성도 많이 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지만,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는 걸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게 된듯하다.

사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물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돈이나 권력, 명성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지나간 역사 등일 테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속적인 부와 욕망을 추구하며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왔나보다.

그 결과로 코로나19는 혹독하게 '너희가 망친 지구의 모습을 좀 보라' 고 질책했고, 일상생활을 멈추게 만들어 '열심히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탐욕스럽게 살아온 우리들 자신이 야기해온 업보(業報)임을 가르쳐주며 말이다.

업보라고 말하고 보니, '오비이락과 사두(烏飛梨落破蛇頭)' 가 생각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의미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우연한 일이 겹치게 일어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업보의 고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여실히 알려준다.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배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퍼드득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가지가 흔들리면서 거기 달렸던 배가 하나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배나무 아래에 쉬고 있던 뱀이 머리를 맞아 죽고 말았다. 이후 뱀은 죽어 멧돼지로 태어났고, 뜻하지 않게 뱀을 죽게 한 까마귀는 꿩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꿩 차례다. 어느 봄날 꿩이 산 밑에서 볕을 쬐고 있는데, 마침 산비탈을 지나던 멧돼지가 그만 돌을 헛디뎌 바위가 굴러 떨어졌고, 볕을 즐기던 꿩은 바위에 치여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후 꿩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사냥꾼이 되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산에 간 사냥꾼은 멧돼지를 발견했고, 놀란 멧돼지는 산속 암자로 숨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여기 암자에 눈 밝은 스님이 있어 멧돼지를 잡으러 온 사냥꾼에게 멧돼지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더 이상 살생하지 말기를 권하였고, 사냥꾼은 마음을 돌려 불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다.

경봉 스님은 "온갖 것 중에 가져갈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業)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저승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법,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비이락' 을 설명하며 되짚어보니 더 와 닿는 말씀이다.

그러고 보면 불교수행은 자신의 업(業)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일상생활 그 자체의 행위가 업(카르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 바로 수행(修行)이기에 그렇다.

지난해 동안 환경오염과 바이러스 창궐의 업보에 시달린 우리는 앞으로 자연과의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 급선무일지 모른다. 살생을 멈춘 저 사냥꾼처럼 말이다. 이제 그만 자연과 화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틱낫한 스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묻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왜 지구가 우는지, 왜 물과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는지, 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는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생각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지구와 얽힌 업보도 풀 수 있다는 말씀이리라.

집에만 갇혀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분명 우리 삶에도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올곧게만 산다면 불보살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영 스님은
불교 계율을 전공해 일본 하나조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율과 불교윤리 분야의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강의했다. 불교계 청년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출가학교' 와 고3 수험생을 위한 '청춘캠프' 지도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BBS불교방송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社說

치유 속 一步 전진하는 한해 되길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멈췄던 2020년을 지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올 한해까지 이어져 새로운 형태로 불교계를 이끌어갈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그리고 치유가 대표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은 올해 언택트 문화의 본격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합동수계법회를 언택트로 시행할 방침이며, 유튜브 활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행 · 포교단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가 올해 특히 유념해야 할 분야는 '치유' 다.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종의 사회적 회향이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사회공헌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동국대는 올 4월경 명상페스티벌을 통해 명상과 수행을 매개로 대중과 만난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각종 중독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스마트쉼 사업' 도 주목할 만 한 치유방안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해동 초조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래한지 1200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국선학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전국선원수좌회 등이 학술대회를 비롯한 법회 및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핵심수행법인 선(禪)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한국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과 명상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

신축년 새해, 묵묵한 소의 걸음처럼 불교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해가 되길 발원해 본다.

기후위기, 불교적 세계관이 대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문제다. 어느 한 집단이나 국가의 변화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인류공동체 차원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의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를 지배해 온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결국 지구를 병들게 했고, 이는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공업(共業)' 의 산물이다. 누구 하나, 어느 국가나 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그동안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면서,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소비해 온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관계성을 성찰하고 그것이 삶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구시대적인 전통의 답습이 아닌,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와 구체적인 대안의 형대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류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불자들의 삶이, 보다 더 실천적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끝을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직시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범불교차원의 사회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불교가 답을 해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 華嚴寺
조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장 은산 종국
회주 송천 종열
주지 초암 덕문
신도회 &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 061-783-7600
기도접수처 | 061-782-0011
www.hwaeomsa.com